

사회

혈세 법인카드 긁고 '뻔뻔 외유'

광주시·4개구 공무원 40명 金庫은행 스폰서 공짜 여행

중국·동남아 유람 ... 공금쓰고 해외출장·공가처리 까지

광주시와 4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5년 동안 시 및 자치구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의 법인카드 사용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나 자치구의 법인카드는 시민의 세금인 예산에서 사용액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공적 비용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사적으로 누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여행을 다녀오면서 해외출장이나 공가(公假)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청 공무원 29명과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공무원 11명 등 총 40명은 광주은행 법인카드 우수고객으로 뽑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와 이들 자치구의 금고은행이며,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은 실과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5년 3명(중국), 2006년 3명(싱가포르), 2007년 5명

(말레이시아), 2008년 5명(태국), 올해 4명(일본)이 여행을 갔다. 동구·서구·남구·북구 공무원들은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공가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 공무원 11명 등 '연가 보상비'까지 챙겼으며, 귀국한 후 별도의 귀국 보고서나 출장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4명은 '광은비자 고객 해외연수'를 통해 일본 오사카와 규슈를 3박5일 일정으로 다녀왔으며, 주요 관광시설 관람·온천욕·유

람선 탑승 등을 즐겼다. 김 의원은 "민간도 아닌 지방정부 공무원이 거래은행의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며, 오래전부터 반복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원의 여행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 공가나 해외출장 명목으로 다녀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들 공무원이 복무조례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공가나 해외출장으로 처리한 11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회수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146) 김종두



주차 차량 30여대 훼손 30대 용의자 검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수 십대를 긁고 달아난 사건(광주일보 10월18일자 6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새벽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여대를 훼손시킨 김모(30·나주시 교동)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해 지난 16일 새벽 1시40분부터 2시까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여대에 승용차 등 31대의 차량 외부를 돌맹이로 긁어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뒤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청자축제 뒤끝 '흥청망청 외유'

강진군, 티켓 많이 판 공무원 99명 선발 일본·국내 여행

수익금 보다 많은 1억1200만원 지출위해 추경까지 편성

강진군이 열약한 재정사정에도 예산 1억여원을 들여 청자축제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외 '포상여행'을 실시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추경예산 1억1200만원을 편성해 청자축제(8월7일~15일) 입장권 판매 성과를 올린 직원 99명을 각각 3박4

일, 5박6일 일정으로 제주도, 울릉도, 일본 등지로 연수보냈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 개최한 청자축제의 수익금이 군의 재정으로 활용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여행성 경비로 낭비됐다는 점이다.

특히 군이 직원들의 연수에 사용한 금액은 청자축제 입장권 판매로 군이 벌어들인 수익금(1억267만원) 보다

많다. 혈세 낭비 논란을 차치하고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셈이다. 이 돈은 군이 청자축제 입장권(5000원) 41만698장을 판매해 20억5349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데 따른 판매 수수료(5%)다.

군의회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견제기능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여

행성 경비가 집행된 것은 군 의회가 표결을 거쳐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집행부의 혈세 낭비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 의회는 지난해 집행부가 요청한 비슷한 성격의 경비 1억원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며 전액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51)씨는 "자원봉사자로 축제 성공을 위해 땀 흘린 주민들도 많은 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실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군이 열약한 재정정편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30대 여교사가 대낮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서로 좋아해" 처벌 못해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강서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놓고 제자인 B(15·3년)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한 뒤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로 남편은 아직 부인의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 교사인 A씨

가 B군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도 성관계를 했다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죽 했으면 양말 훔쳤을까 ..."

6남매 엄마에 온정 '밀물'

북구의회차원 대책 모색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물건을 훔친 6남매 엄마의 사연(광주일보 10월16일자 1면)을 접한 각계 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이종국 의원은 18일 "기사를 읽은 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현실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갈수록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6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는 엄마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며 "북구의회 또는

북구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하남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6남매의 엄마에게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남편과 함께 6남매를 키우고 있는 A(38·광주시 북구)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양말 등 어린이용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댐 천연기념물 원앙 19마리 폐사

북구, 역학조사 나서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광주댐 인근에서 집단폐사한 채 발견돼 관계 당국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1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에 담양군 고서면 광주댐 인근에서 원앙 19마리가 폐사돼 있는 것을 공촌체집 중이던 박모(50)씨가

발견했다. 박씨는 "수업시간에 쓰러고 메뚜기를 채집하고 있는데 원앙 1마리가 기력없이 걷고 있어 주변을 살펴보니 하천 옆 풀숲과 모래밭 등에 원앙들이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는 문화재청에 폐사사실을 알리고 죽은 원앙들을 수거해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허위 입원 3천만원 뜯어

기협의로 구속하고, C과 행동대원 김모(38)·O과 행동대원 김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러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몸을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광주 S과 행동대원 정모(38)씨를 사

경청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8월 초부터 두 달여간 광주 모 한방병원 등 4곳을 돌아다니며 허위로 입원한 뒤, 9개 보험사를 상대로 4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훔친 반지 팔려다 얼굴 빨개진 도둑



○1년6개월 전 훔친 반지를 팔러 온 30대 남성이 말의 출처를 묻는 금은방 주인에 의해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는 바람에 절도 사실이 들롱.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3)씨는 지난해 3월 13일께 광주 서구 화정동 손모(여·37)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에서 금반지를 가지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28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1년6개월 가량을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전날 동구 산수동의 한 금은방에 훔친 패물을 팔러 왔는데, 금은방 주인이 "아저씨 것이요?"라고 묻자, 총각인 박씨가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자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이 신고로 범행이 들롱.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